

조선 Weekly

2021.03.15

Analyst 김홍균 02 369 3102 usckim10@db-fi.com

조선업종 주간 지표 및 News Summary

- 신조선가 Index 129 로 전주와 동일 - VLCC(\$89.5→\$90m), Suezmax 탱커(\$59→\$59.5m), Aframax 탱커(\$48→\$48.5m), Capesize 벌커(\$50→\$50.5m), Panamax 벌커(\$27.8→\$28m), 174,000cbm LNG 선(\$187.5→\$188m), 23,000teu 컨테이너선(\$146→\$147m), 2,750teu 컨테이너선(\$31.3→\$32.5m)
- 중고선가 Index 106 으로 전주대비 3pt 상승 - 5년된 Suezmax 탱커(\$43→\$45m), 5년된 Aframax 탱커(\$33→\$35m), 5년된 Capesize 벌커(\$36.5→\$39m), 5년된 Panamax 벌커(\$25→\$25.5m), Handymax 벌커(\$20.8→\$21.5m), 5년된 Handysize 벌커(\$16.5→\$17m)
- 주요News: 1) 대만 Wan Hai Line이 13,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추가 발주 예정이고 현대중공업 등과 협의 중
2) Seaspan 이 삼성중공업에 15,000teu 급 컨테이너선 5 척을 추가 발주
3) 대우조선해양은 Shell 이 용선하는 이중연료추진 VLCC 10 척을 수주
- 운임동향: 1) 유조선: WS VLCC(Gulf-S.Korea) 26.0(-7.1% WoW, -89.4% YoY)
2) 컨테이너선: CCFI 1,912.13 / SCFI 2,637.53 각각 WoW -3.0%, -3.1%, YoY +112.8%, +189.3%
3) 벌크선: BDI 1,960 / BCI 2,019 각각 WoW +7.2%, +13.2%, YoY +210.6%, +749.2%
4) LPG 선(46,200 m³): 중동 → 일본 \$32.0/mt(+10.3% WoW, -43.4% YoY)
5) LNG 선: 160 천m³ \$28,500 / 145 천m³ \$17,000 각각 WoW -5.0%, 0.0%, YoY -26.0%, -41.4%

도표 1. 세부 선종별 신조선가와 추이

(단위: 백만USD, %)

선종			연말		2021			선가 및 Index 증감 추이			
			2019	2020	1주전(A)	현재(B)	(B/A)%	최저(D)	최고(E)	(B/D)%	(B/E)%
Tankers	VLCC	320,000dwt	92.0	85.5	89.5	90.0	0.6	62.5	163.0	44.0	-44.8
	Suezmax	157,000dwt	61.5	56.5	59.0	59.5	0.8	43.0	100.0	38.4	-40.5
	Aframax	115,000dwt	48.5	47.0	48.0	48.5	1.0	33.5	82.5	44.8	-41.2
	MR Tanker	51,000dwt	35.8	34.0	34.3	34.3	0.0	26.0	53.5	31.9	-35.9
Bulk	Capesize	180,000dwt	49.5	47.0	50.0	50.5	1.0	41.8	99.0	20.8	-49.0
	Panamax	81,000dwt	27.5	26.0	27.8	28.0	0.7	24.3	59.0	15.2	-52.5
	Handymax	62,000dwt	25.5	24.0	25.3	25.3	0.0	22.3	48.5	13.5	-47.8
	Handysize	35,000dwt	23.5	23.0	24.0	24.0	0.0	19.5	40.0	23.1	-40.0
Gas	LPG	82,000m³	71.0	71.0	71.5	71.5	0.0	58.0	96.5	23.3	-25.9
Vessels	LNG	174,000m³	186.0	186.0	187.5	188.0	0.3	180.0	207.5	4.4	-9.4
Dry Cargo	Container	23,000teu	146.0	142.5	146.0	147.0	0.7	140.0	155.0	5.0	-5.2
	Container	2,750teu	31.5	30.0	31.3	32.5	3.8	26.0	56.5	25.0	-42.5
	Car Carrier	6,500ceu	65.0	68.0	69.0	69.0	0.0	59.0	68.0	16.9	1.5
Clarkson Index			130	126	129	129	0.0	104	190	24.0	-32.1

자료: Clarkson, DB금융투자 *기준: 2001년 1월 이후

도표 2. 세부 선종별 중고선가와 추이

(단위: 백만USD, %)

선종			연말		2021			선가 및 Index 증감 추이			
			2019	2020	1주전(A)	현재(B)	(B/A)%	최저(D)	최고(E)	(B/D)%	(B/E)%
Tankers 5 yrs	VLCC	310,000dwt	75.0	63.0	67.0	67.0	0.0	60.0	163.0	11.7	-58.9
	Suezmax	160,000dwt	53.0	43.0	43.0	45.0	4.7	38.0	105.0	18.4	-57.1
	Aframax	105,000dwt	41.0	32.5	33.0	35.0	6.1	26.0	79.0	34.6	-55.7
	Handy	51,000dwt	30.0	26.0	27.5	27.5	0.0	20.0	54.0	37.5	-49.1
Bulkers 5 yrs	Capesize	180,000dwt	28.0	35.5	36.5	39.0	6.8	23.0	155.0	69.6	-74.8
	Panamax	82,000dwt	23.5	22.0	25.0	25.5	2.0	13.0	92.0	96.2	-72.3
	Handymax	61,000dwt	17.0	17.8	20.8	21.5	3.4	12.0	75.0	79.2	-71.3
	Handysize	37,000dwt	16.5	14.8	16.5	17.0	3.0	9.0	54.0	88.9	-68.5
Dry Cargo	Container	4,500teu	13.0	19.0	25.0	25.0	0.0	7.0	38.0	257.1	-34.2
	Container	1,700teu	7.8	9.0	11.0	11.0	0.0	5.5	27.5	100.0	-60.0
Clarkson Index			96	93	103	106	2.9	75.0	241.0	41.3	-56.0

자료: Clarkson, DB금융투자 *기준: 2001년 1월 이후, ^ 217,02.10 76,000dwt에서 82,000dwt로 변경

도표 3. 한주간 조선업종관련 주요 기사

날짜	기사내용	출처
3/12	주요 조선사들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생산시설의 재가동은 자제하고 발주량 증가에 따른 신조선가 인상을 노력	TradeWinds
3/12	Qatar Petroleum이 조선소, 선급 및 오일메이저 등과 함께 팀을 이뤄 새로이 중형 및 대형 LNG선 선형을 개발 추진	TradeWinds
3/12	대만 Wan Hai Lines이 총 10.4억불 규모의 13,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며,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와 협의 중으로 소개.	TradeWinds
3/12	Seaspan 사가 중국 양쯔강조선소와 삼성중공업에 15,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6척과 5척 추가 발주하며 총 발주잔고를 31척으로 늘림.	TradeWinds
3/12	Opec+의 오는 4월 생산량 유지 결정으로 단기 유조선 업황 회복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 재고의 부족 및 저속 운항과 노후선 퇴출 등으로 업황 회복 가능.	TradeWinds
3/12	주요 해운관련 국가들이 선박의 탈탄소화를 위해 제가를 위해 50억불 규모 연구기금 설립을 제안한 "moonshot proposal"을 제출, 관련 국제 해운 기구가 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, 2021년 말까지 채택할 것을 촉구.	TradeWinds
3/12	대우조선해양은 Shell이 용선할 이중연료추진 VLCC 10척 건조를 위해 3개 선사와 총 10억불 규모 신조 계약 체결.	Upstream
3/12	Chevron은 호주 서부지역 Jansz-Lo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최종투자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소개. 이번 Jansz-Lo필드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LNG를 공급을 할 예정.	Upstream
3/12	프랑스 Total 사가 지난해 말 주요 직원들을 대피시킨 모잠비크 Afungi LNG 생산설비 건설 현장에 직원 및 현지 인력들을 수주 내 복귀시켜 3월 말부터 건설 재개 계획.	Upstream

자료: 국내외 언론, DB금융투자